안전을 위해 체크! 자동차 타이어 교체 시기

타이어 없이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타이어의 상태를 꼭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타이어를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 시기와 마모한계선 체크 등 타이어 관리에 대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sfdirect)가 설명했다.

■ 자동차 타이어 교체 시기

일반적으로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은 1년에 약 12,500마일 주행 기준으로 3년 정도이다. 이 때문에 대략 32,000~35,000마일 주행 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32,000~35,000마일을 운행할 때까지 3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이럴 땐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5년 정도 타이어를 사용 후 교체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주원료는 고무인데, 고무는 5년이 지나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기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5년이 지나면 타이어가 멀쩡해 보여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가장 좋은 건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타이어에 표시된 마모한계선으로 알아볼 수 있다. 만약 타이어가 마모한계선까지 닳았다면, 권장 운전 거리나 기한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타이어 마모 상태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체해 주어야 한다.

■타이어 마모한계선 체크 방법

그렇다면 타이어 마모한계선은 어떻게 체크할까?

먼저 직접 눈으로 타이어의 마모한계선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타이어의 옆면에는 돌출된 삼각형 모형이 새겨져 있다. 그 표시를 따라 위로 가면 마모한계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타이어 홈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마모한계선이 양 옆 트레드와 비슷한 높이라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눈으로 봐선 감이 오지 않는다면 자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를 이용해 타이어 홈에서 시작하는 트레드의 높이를 재면 되는데요. 트레드의 높이가 5mm 이하라면 주의, 2mm 이하라면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도 타이어의 수명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선은 카드 끝과 마그네틱 사이의 간격이 4mm이다. 그러므로 카드를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마그네틱과 카드 끝의 간격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카드 간격이 타이어 트레드 위로 올라온다면 타이어가 3~4m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타이어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타이어 사용 기간 확인하기

마모한계선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타이어의 제조일자이다. 앞서 타이어의 경우 고무 특성상 5년이 지나면 경화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사용 중인 타이어의 제조일자가 언제인지 체크하는 것도 타이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제조일자는 타이어의 옆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의 옆면에는 4자리의 숫자가 쓰여 있다. 4자리 숫자 중 2자리는 생산 주차, 뒤 2자리는 생산연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717의 경우 2017년 17번째 주차에 생산되었다는 뜻이다. 이 경우 타이어가 제조된 지 10년이 넘었으니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는 안전운전과 직결된 부품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일러스트=삼성화재 다이렉트

타운뉴스® www.townnewsusa.com

행복한 소식
가득 전합니다.

좋은 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는 1994년 창간 이래
남가주 지역 한인과 함께
호흡해 온 신문입니다.

타운뉴스는 여러분의 비지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562.404.0027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